



전북 익산에서 의사 시발생 고병원성 가능성 높아



농림부는 전북 익산 소재 종계(種鷄) 사육 농장에 대한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의심되는 닭이 발생되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발생농장은 육용종계 13천여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6천여마리가 죽어 11월 22일 11시경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당일 23시경 1차적으로 의사 시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고병원성 시 판정을 대비하여 전북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의심 닭 발생농

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당해 농장의 달걀을 부화시키고 있는 익산 소재 부화장 2개소에 대하여도 폐쇄 조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동 질병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농장내 살아있는 닭 6천여마리도 살처분·매몰토록 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농장에 대한 예찰 등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검역원 관계 전문가에 의하면 이번 발생한 의사 시는 폐사 상태 등 역학적으로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최종 확진은 11월 25일경에 판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50명분)와 인플루엔자백신(300명분)을 긴급 지원하고 살처분 등에 동원되는 사람에게는 특수안경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50명분)도 지급키로 하였다.

한국가금학회 제23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김기석 신임 회장 취임 -



한국가금학회(회장 강창원)는 지난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8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미농무성의 Hyun Lillehoj 박사의 초청특강에 이어 17편의 신진가 금학자 특강 및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32편의 포스터가 소개되는 등 어느 때 보다 풍성한 논문들이 선을 보였다. 발표된 내용 중 최우수상에는 충북대학교 신정화 씨가 발표한 'SPF 닭에서 재조합 H9N3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평가'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정기총회에서는 김기석 경상대학교 교수가 신임 회장에 취임하면서 1년간의 임기를 맡아 활동하게 되었는데,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론과 경험이 조화된, 축산학과 수의학이 조화된, 신구가 조화된 학회'를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임원선출은 이상진 수석부회장을 비롯, 한형석, 윤정로, 박장희, 김재홍, 한재용, 박장희 소장이 맡게 되었고, 총무이사는 손시환 진주산업대학 교수가 담당하게 되었다.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시상된 학회상과 감사패는 공적상에 김선중 교수(서울대)와 한형석 회장(한국계육협회), 학술상에는 황보종 박사(축산연구소)가, 공로패는 이봉덕 교수(충남대), 박장희 소장(사료협회), 김지혁 박사(축산연구소)가, 감사패는 애그리브랜드, 조인, 하림, 양지부 회장, 독바위농장, 우진B&G가 각각 수상하였다.

한국양계농협

2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23일 한강관광 호텔에서 '2006년도 제 2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정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



농가들이 일률적인 생산을 가능토록 양질의 OEM사료를 생산하고 GP이전 및 개선, HACCP 도입, 출자금 등을 도입하며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 조합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신용, 공제사업 활성화와 판매, 가공사업 및 연체채권관리로 인한 수익 증대 등을 통해 2007년 당기순수익을 1,368백만원의 흑자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임이사 보궐선거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사항으로는 200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책정, 임원보수 및 실비 변상규약개정(안),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정관 개정(안), 대의원선거규약 폐지(안), 대의원회 운영규약 제정(안) 등이 다루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한국양계농협은 10월 26일자로 상호금융 예수금 3,000억원 달성을 기념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달성탑을 수상하여 이날 전 달식이 있었다.

축산연구소

인삼성분 함유된 닭고기 개발

농천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인삼 닭고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연구소가 개발한 인삼 닭고기 생산기술은 사포닌 함유량이 높은 인삼 부산물 잎과 줄기를 닭에게 급여, 닭의 생리기능 및 면역기능이 증진 될 뿐만 아니라 닭고기에는 인삼사포닌이 축적 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인삼부산물 추출액을 닭에게 급여하면 평균 적혈구 용적 및 혈색소량이 증가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중 감마-글로불린비율이 증가해 면역능이 향상되며 급여기간이 길수록 인삼 사포닌 축적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연구소는 인삼닭고기 개발을 마치고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닭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개원식 개최, 안전 축산물 공급에 앞장

지난 14일 개방과 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한 역할을 담당할 『축산물HACCP기준원』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축산업관련 기관·단체장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농림부에서는 '2006년 3월 24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HACCP 담당기관으로 지정하였었다.

이에 따라 기준원은 사육농장과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사업, HACCP 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 FTA 대책 토론회 본회 한희 이사, 계란 최소 현행관세 유지를

농수축산신문(대표 전정희)은 GS&J와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한·미 FTA 협상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라는 주제로 '농업분야 협상쟁점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희 이사

이날 양계분야 토론에서는 본회 한희 이사가 참석해 한·미 FTA체결시 계란시장에 국내 대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국내 계란산업은 1조2천억원에 이르며, 우리가 한·미 FTA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산란계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계란생산비가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사료원료인 옥수수과 대두박의 가장 큰 세계적인 수출대국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수준에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란은 신선식품이라 수입에 안전하다고 했으나 최근 냉장 컨테이너 운송산업의 발전으로 30일이 경과해도 신선도의 호우 유닛이 70이상 유지가 가능하며 미국에서 해상 운송기일도 18일 이내에 국내도착이 가능하다.

또 수입개방시 미국업체는 미국의 잉여계란을 국내시장 장악을 위해 미국 최저가격 이하로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에서 최소한 계란은 현행 관세정도는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악의 경우 북·미 FTA체결과정에서 캐

나다의 경우처럼 쿼터제를 연구해 수입물량과 가격을 연계한 연동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란다.

2006 소비자 정보 전시회 안전축산물^愛 개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농림부는 지난 14~15일에 걸쳐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관에서는 안전한 우리고기를 제대로 알고 맛있게 먹자는 목적으로 '2006 소비자 정보 전시회 안전축산물^愛'가 개최되었다.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웰빙 취향의 축산물 소비 성향의 변화에 맞춰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비자 신뢰 확보와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벌였다. 이날 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조인(주)이 참여하여 우수 양계산물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시장내 계란 150판을 이용하여 '안전축산물'이란 문구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내년 9월 개최

국제축산박람회가 내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박람회를 주관하는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축산단체 회장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센트로 호텔에서 축산박람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2007년 축산박람회 일정

및 장소를 확정했다.

행사장소는 지난해 축산박람회를 개최했던 대전무역전시관으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 주최 측은 2005 축산박람회에서 제기됐던 미흡한 시설 보완에 각별히 신경 쓰기로 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기술 R&D에 관한 협약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와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10월 30일(월) 경기도 수원시 축산연구소에서 『축산물등급판정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판정기술개발을 위한 부족한 연구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축산물 홍보관 개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11월 20일 본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옥 1층에 50여평 규모의 『우리축산물 홍보관』을 개관 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타기관·단체를 방문하거나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동 홍보관 개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흥



보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사업안내는 물론 방문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인근 주민·학생, 유관단체 회원 등을 초청하여 등급판정사업과 축산정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I 대책상황실 운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요 유입 경로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에 나섰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중앙 본부를 비롯해 도본부 9개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주요 철새도래지, 민통선 지역에서는 철새 및 텃새의 폐사체, 종오리, 육용오리 분변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및 혁신실천결의대회 성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11월 3일 충북 옥천 공설운동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및 혁신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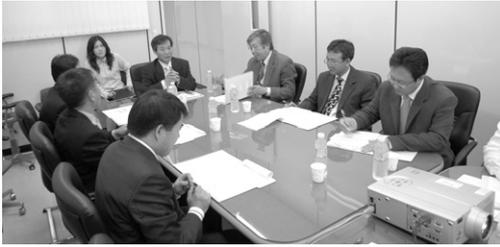


최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 특별방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결의하고,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발전적인 성장 동력을 가동하여 경영혁신을 실천하겠다는 대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한 정보제공 △최초의 발견자 △적기의 방역활동 전개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오리 혈청검사, 닭 임상관찰,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가금류의 야생조류와 접촉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2차 양계분야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양계질병 위생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양계산업 현장대로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지난 11월 3일 “2006년도 제2차 양계분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양계질병분야 협의회는 각 분야 관



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날 대한양계협회(이종길), 업계(문성철, 농장(손정호), 학계(성환우, 송창선, 모인필 교수), 단체(양계수의사회 윤호식, 가금질병연구회 나만채), 현장 수의사(손영호) 등 다양한 양계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의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뉴캐슬병, 전염성기관지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양계질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뉴캐슬병(ND) 관련, 산란계의 뉴캐슬병 백신 프로그램 개선, 국내 뉴캐슬병 항원 모니터링 추진, 방역관리 개선사항 등 현장애로기술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전염성기관지염(IB) 관련, 최근 주변국의 새로운 형태 신장형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비한 연구, 새로운 IB 백신주 개발·개량의 필요성 등이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연구사업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이외에도,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질병 예방연구나 실태조사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시하였다.

축산신문사

2006 추계 축산인 등반대회 개최

축산신문사(대표 윤봉중)는 지난 17일 2006년



추계 축산인 등반대회를 청계산에서 200여명의 축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축산현안 등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인들의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한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하였다.

이날 축산인등반대회에서 본회 조종수 부장(업무지원팀), 이종웅 팀원(업무지원팀), 장성영 팀원(홍보팀)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전 우승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준우승은 축산연구소가 차지했고, 본회 조종수 부장(업무지원팀장)은 협동상을 수상하였다.

라이브뉴스

인터넷 라이브뉴스 큰 반향

축산업계 최초의 인터넷신문인 라이브뉴스(발행인 곽동신)가 11월 11일 서비스를 시작하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브뉴스(www.livesnews.com)는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산 쇠고기의 검역현장이나 HACCP 기준원의 개원식 등을 기사와 함께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장에 방문한 것과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